



2026. 6. 19 (금)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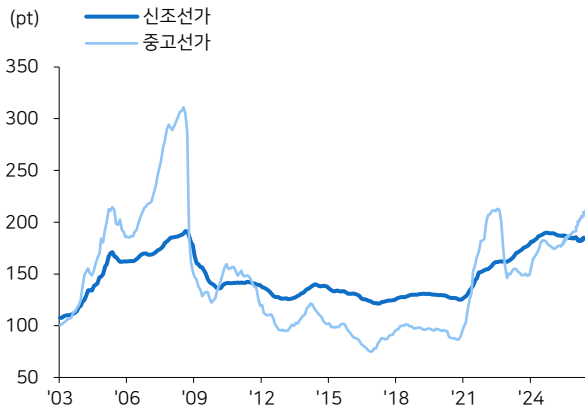
kiyeon.bae@meritz.co.kr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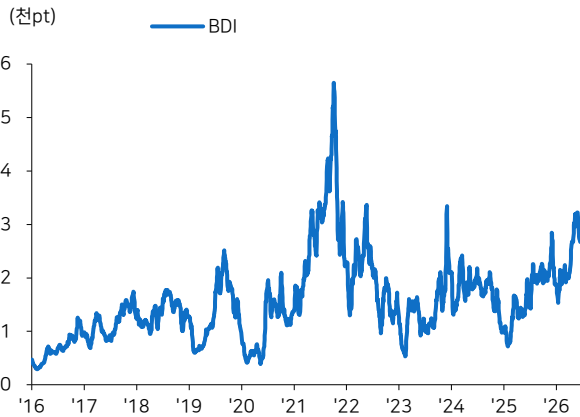
신조선가 185.0p (-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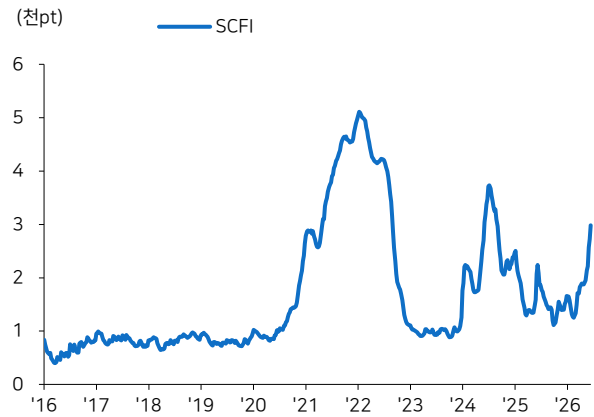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22.0달러 (-1.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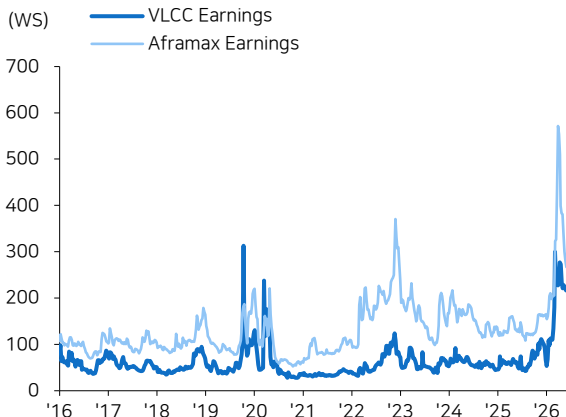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653.0p (-17.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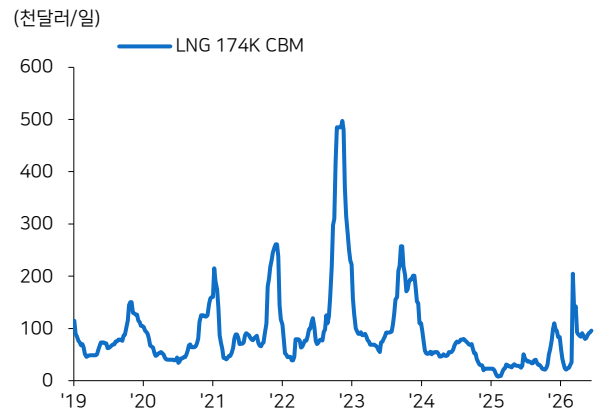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2,985.2(+258.7 WoW)



VLCC Spot Rate 218.3WS (+1.6p WoW)



LNG Spot 운임 96.0천달러 (+3.3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HD 현대중공업, 차세대 합정기술로 글로벌 시장 공략 (뉴시스) <https://zrr.kr/NWe0I3>

HD현대중공업이 17일부터 19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6 국제해양·안전대전'에 참가해 AI 기반의 다목적 원해경비함(OPV) 등 최신 합정 기술을 선보인다고 보도됨. 이번 전시회에서 HD현대중공업은 HJ중공업, 강남조선과 공동 부스를 운영하며 필리핀 해군 수출형 모델 등을 전시했으며, KOTRA와 함께 페루 해군 및 현지 국영 조선소인 SIMA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선·해양 방산 세미나를 개최해 중남미 시장 진출 전략을 공유했다고 전해짐. 또한 HD한국조선해양은 해양경찰청과 경비합정 건조 기술 교류 및 수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합정 R&D 역량과 운용 노하우를 결합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알려짐.

HD 현대 인도 타밀나두주 조선소 사업 '급물살'...산업부 장관 이어 주총리 연쇄 회동 (더구루) <https://zrr.kr/whyIjm>

HD한국조선해양의 권영훈 글로벌사업부장이 인도 타밀나두주 첸나이 주청사에서 주총리와 회동하며 현지 조선소 설립을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했다고 보도됨. 이번 회동은 지난 12월 체결된 MOU의 후속 조치로, 타밀나두주정부는 현지 투투쿠디 지역에 약 40억 달러 규모의 조선소 설립과 15,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며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고 전해짐. 이미 타밀나두주 국립조선중공업단지(NSHIPTN) 건설에 대한 인도 해운총국의 승인이 완료된 상황에서, HD현대는 인도 정부의 조선업 육성 로드맵에 발맞춰 코친 조선소와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생산 거점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알려짐.

한화오션, 환해지 확대...美 투자 일정 반영한 외환관리 강화 (매일일보) <https://zrr.kr/sk1EJH>

한화오션이 장기화되는 고환율 기조와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수주분에 대한 환해지를 시행하는 등 외환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교화하고 있다고 보도됨. 그동안 한화오션은 미국 투자 및 MASGA 프로젝트 추진을 고려해 달러 자금을 직접 운용하는 전략을 취해왔으나, 최근 미국 내 투자 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보유 달러와 향후 투자 지출, 신규 수주 물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포지션 기반의 통합 외환 관리로 전략을 전환했다고 전해짐. 이번 환해지 확대는 단순한 수익성 확보를 넘어 급변하는 외환시장에서 재무 안정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평가된다고 알려짐.

삼성중세 독립해 한화오션 LNG 선까지 뚫었다... 외산 벽 넘는 에스엔시스 (조선비즈) <https://zrr.kr/Uyounl>

삼성중공업에서 2017년 분사한 조선 기자재 업체 에스엔시스가 독자적인 운항제어시스템과 배전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독점 체제를 깨고 성장하고 있다고 보도됨. 에스엔시스는 분사 초기 삼성중공업 의존도가 높았으나, 현재는 한화오션 등 국내외 주요 조선사로 고객사를 다변화하며 기술력을 입증했고, 특히 노르웨이 Kongsberg가 독점하던 선박 제어 시스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과 신속한 사후관리를 앞세워 수주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해짐. 현재 2,640억 원 규모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에스엔시스는 올해 11월 중국 난통 공장 가동을 통해 현지 시장을 공략하고, 선박 MRO(유지·수리·보수) 사업 및 육상 전력망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알려짐.

GTT wins key gig for strategic China LNG project (Upstream) <https://zrr.kr/IHVfJh>

GTT가 중국 PipeChina가 추진하는 광둥성 지양시의 Yuedong LNG 터미널 확장 프로젝트에서 24만 입방미터 규모의 육상 LNG 저장 탱크 3기에 대한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이번 프로젝트는 Yuedong 터미널의 연간 처리 능력을 기존 200만 톤에서 600만 톤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GTT는 파트너사인 China Chengda Engineering Company를 통해 자사의 최신 GST 멤브레인 기술을 적용한 탱크 설계를 수행하게 된다고 전해짐. GTT가 제공하는 GST 기술은 기존 육상 저장 탱크 대비 철강재 사용량을 40% 절감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였으며, 동일한 면적에서 10% 더 많은 LNG를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2028년 4분기 인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려짐.

Russia poised to deliver second home-grown Arc7 LNG carrier newbuilding (TradeWinds) <https://zrr.kr/8Mq7hi>

러시아 Zvezda Shipbuilding Complex가 건조한 두 번째 Arc7급 쇠빙 LNG 운반선인 Konstantin Posyet호의 명명식이 지난 18일 개최되었다고 보도됨. 이 선박은 172,600m³ 용량의 LNG를 적재할 수 있으며, 2m 이상의 두께를 가진 북극 해빙을 독자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Arctic LNG 2 프로젝트의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해짐. 과거 삼성중공업이 선체 건조 등에 참여했으나 서방의 제재 이후 Zvezda Shipbuilding Complex가 자국 내에서 건조를 마무리한 이 선박은, 지난해 12월 인도된 1호선 Alexey Kosygin호에 이어 러시아의 북극 항로 연중 운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력으로 투입될 예정으로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